

2030년 시장규모 100억 달러... K-방산, 동남아 정조준

방산기업 '인도 디펜스' 참가

LIG넥스원 천궁-II·현궁 등 소개
HD현대중·KAI와 연계 부스 조성

현대위아 모빌리티 기반 화포체계
최대 18km 사거리에 기동력도 개선



LIG넥스원 인도 디펜스 홍보전시관.



LIG넥스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현대위아의 전시장. /현대위아

국내 방산업체들이 'K-방산'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한 동남아시아 공략에 집중한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은 중국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가격 경쟁력, 정치적 신뢰 등의 요인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현지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급부상중이며 필리핀은 최근 10년 동안 약 30억 달러(약 4조1000억원)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대표

기업인 LIG넥스원과 현대위아는 오는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지상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현지 공략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 인도네시아 군 현대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전략 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

산업(KAI)과 연계해 '팀 코리아'를 강조하는 부스를 구성하고 협력회사 연합체인 'A1 소사이어티' 5개사와 공동 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K-방산 대표 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2006년 인도네시아에 주파수 도약형 무전기 PRC-999K 수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인도 디펜스에 지속 참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포체계를 선보인다.

현대위아가 선보인 경량화 105mm 자

주포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신속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했으며 기존 제품보다 사거리와 기동력을 대폭 개선했다. 최대 18km 사거리를 지니고, 중량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여 최대 시속 100km를 내는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헬기를 통한 공중 수송도 가능하다. 현재 전력화를 위해 군 시범운용 중이며, 이달 중 평가가 종료될 예정이다.

현대위아는 다양한 차종에 탑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원격

사격무기통제체계'도 함께 선보였다. 사수가 실내 모니터로 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사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7.62mm 기관총, 5.56mm 소총을 결합할 수 있게 설계, AI 기반 자동추적 알고리즘을 탑재해 사격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차량탑재형 81mm 박격포'도 전시했다. 기존 도수운용 방식의 박격포를 차량에 탑재해 운용 편의성과 전투 준비 시간을 개선했다. 방열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초 이내로 단축했으며, 운용 인원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분리해 기존 박격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방위산업 시장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원) 시장으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HD현대중, 2400t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 진수

총 6척 수주... 올해만 두번째 수주
시운전 등 거쳐 내년 3월 인도예정
2028년 까지 후속함 5척 순차 인도



HD현대중공업이 건조·진수한 2400톤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 '라자 술라이만'함.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K-해양방산의 핵심 파트너인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총 6척의 원해경비함 중 1번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울산 본사에서 2400톤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인 '라자 술라이만(RAJAH SULAYMAN)함'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진수한 필리핀 초계함 2번함 '디에고 실랑함'에 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수주 함정 진수식이다.

라자 술라이만함은 길이 94m, 폭 14m, 순항속도 15노트(약 28km/h), 항속거리 5,500해리(10,186km)에 이르는 최신예 원해경비함으로 76mm 함포, 30mm 부포, 기만기발사체계, 탐색레이더, 전자광학추적장비 등 무기체계가 탑재된다.

이 함정은 16세기 외세의 침략에 맞서 마닐라를 지켜낸 필리핀의 영웅 '라자 술라이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라자 술라이만함은 이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 등을 거쳐 필리핀 해군에 내년 3월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후속함 5척도 순조롭게 건조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필리핀 정부는 자국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다수의

함정을 확보하는 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HD현대중공업에 호위함 2척(2016년), 초계함 2척(2021년), 원해경비함(OPV) 6척(2022년)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주한 총 6척의 원해경비함 가운데 첫 번째 함정을 성공적으로 진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K-해양방산의 핵심 파트너

인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로미오 브라우너 합참의장은 "라자 술라이만함은 필리핀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긴밀한 협력의 결실로, 팀워크와 공동 비전의 힘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라며, "6월 12일 뜻깊은 필리핀 독립기념일을 맞아 역동적이고 유능한 해양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기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로미오 브라우너(Romeo S. Brawner) 합참의장,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Theresa B. Dizon-De Vega) 주한필리핀대사, 에드윈 아마다르(Edwin E. Amadar) 해군참모차장, 어구스토 가이테(Augusto V. Gaite) 국방부 방산기술개발 차관보 등 필리핀 군 및 정부 관계자들과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등 양국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상호 호혜적부분 만들어 한미협상 타결시킬 것"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 본부장(사진)은 12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어떤 협상도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발령을 받고 이날 취임한 여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측면에서 미측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수세적으로 협상하기 보다는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 상호호혜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고 타결 이후에도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저희가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요일 런던에서 미중 협상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자간 정상 행사도 있으며, 미국은 18개국과 동시에(통상협상)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미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주적 만데이트(mandate, 선거에 의해 주어진 권한)를 갖고 들어온 만큼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체제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산업·에너지·투자·통상 모든 것에 걸쳐 전 부처 차원에서 이런 영역을 망라하는 TF를 확대 개편해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파이프라인 확장에 기술 수출까지... 'ADC' 개발 속도전

셀트리온 'CT-P70' 파이프라인 구축
대장암 등 치료 신 임상결과 발표도
동아에스티 등 기업들도 개발 나서

파이프라인은 'CT-P70'이다.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고, 올해 안에 첫 환자 투여를 개시할 예정이다. CT-P70은 비소세포폐암을 적응증으로 하며, 암세포에서 활성화돼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한다.

셀트리온은 이달 10~12일 인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월드 ADC 아시아 서밋'에서는 ADC 신약 후보물질 'CT-P73'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CT-P73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대장암 등 고형암을 치료하기 위한 신

약 후보물질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CT-P73은 전임상에서 낮은 독성, 효능,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료 지수 측면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방관자 효과 측면에서 우수성이 기대된다. 방관자 효과는 표적 암세포뿐 아니라 종양 미세환경이 약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강점을 쌓은 만큼, ADC 항암제 개발로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도 자기면역질환제에서 항암제로

제품군을 넓힌 바 있다.

동아에스티는 ADC 전문기업 앵티스를 인수해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자회사 앵티스는 올해 들어, 중국 우시 XDC, 켐익스프레스 등과 ADC 및 바이오 접합체를 개발하는 전략적 협약을 연달아 체결했다.

앵티스는 항체 변형 없이 특정 위치에 약물을 선택적으로 접합시키는 링커 기술 '앵클릭'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항체와 약물의 비율(DAR)을 균일하게 확보할 수 있어 ADC 치료제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활용해 앵티스는 위암 및 췌장암 신약 후보물질 'AT-211'도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인 '항체·약물접합체(ADC)'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며 기술수출 추진과 생산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신약개발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는 셀트리온도 ADC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한다.

가장 먼저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